한 물건 언제나 신령스럽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本來如不動(본래여부동)한데
今日轉還明(금일전환명)이로다
大千俱滅盡(대천구멸진)하야도
此物鎭長靈(차물진장령)이로다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 오늘 도리어 더욱 밝구나. 대천세계가 모두 다 없어져도 이 물건은 언제나 신령스럽네.

금일 시회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라.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되어 萬魔와 千佛을 모두 태워버릴 때 佛祖의 向上一路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살아서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장부들이여!

올 삼동결제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진해야 하리니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해야 하리라.

이렇게 공부해야 오래지 않아 이루리니,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슨 부처와 중생을 논하겠는가?

대용맹 · 대정진으로 은산철벽을 뚫어야 하리라.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이르기를

會麼(회마)아
境了人空鳥亦稀(경료인공조역희)한데
落花寂寂委靑苔(낙화적적위청태)로다
老僧無事對松月(노승무사대송월)이라가
卻笑白雲時往來(각소백운시왕래)로다

알겠는가?

경계 없어지니 사람 없고 새도 드문데 지는 꽃 살포시 푸른 이끼에 떨어진다. 노승이 일없이 소나무와 달을 보다가 때로 오가는 흰 구름을 보고 웃는다.

그대는 세상 살리는 주인공이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쟁이 터져 사람 가슴에 총을 쏘고 있습니다. 아차! 어떻게 할까? 한 방울의 미움이 사람 죽이는 전쟁이 됩니다. 작은 날 개짓이 하늘을 찢는 천둥이 됩니다. 가슴으로 돌아오소서. 지심으로 돌아오소서.

산천은 단풍이 들어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고 출가 납승은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목숨 같은 화두 몰두 이외에 전쟁 씻을 무슨 방법이 있나? 동안거 결제보다 더 큰 전쟁 씻어낼 기도가 있나? 내 책임입니다. 내 업장입니다. 이 일밖에 없으니 한 생각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상래소수 공덕해 회향삼처 실원만(上來所修 功德海 廻向三處 悉圓滿) 부처님이 닦아놓은 공덕의 바다, 모든 생명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라고 하면 머리에 머리를 덧붙인 격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목을 자르고 살기를 원하는 식이다. 어떻게 발붙일까? 만 리에 구름이 없어 항상 드러나 있다. 공겁 이전 한 덩어리 달빛, 이 응관(應觀) 이전에 아득한 이 빛 육 손가락이요, 잔소리다. 알았다고 하면 기특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다고 하면 허락하리라." –경허스님 말씀–

출렁출렁 출렁이는 이 활기 동천에 뜬 보름달이 새벽하늘 서쪽 고목나무 위에 밝아있다. 세상은 둘러꺼지게 밝아있다. 지축을 흔드는 대종소리 세월을 넘어선 이 법계성 절절이 응하는 이 응관 지심귀명례 이 지심 고구정녕 반야심경의 이 반야 목탁소리 죽비소리 엎어도 잦혀도 아! 한 가닥 부처님의 골수! 구구 팔십일 이 골수여! 경허스님 확철대오, 이뭘까 한 가닥으로 우렁차게, 웅장하게, 찢어지게, 밝게, 이~뭘까?

밝은 달은 어디로 돌아가나? 고요는 세월을 넘어 푸른 잎은 단풍이 들어 낙엽이 지고 있네. 물건마다 머리마다 다 드러나는 이 거울, 신비의 이 거울 산하대지 삼라만상 가지가지 이 반야 알 수 없는 한 덩어리 이 자체 텅텅 비어 자유스러워 넉넉하고 여유스러워 생명 뿌리 알 수 없는 이~뭘까? 철을 넘어 언제나 싱싱한 바다, 살아있는 것의 이 기상 하늘은 끝까지 높아져 실핏줄에 잦아지네. 세상은 화장찰해 터질 듯 촉발하는 봉오리 봉오리 천하강산 이 반야, 이~뭘까?

영혼이 행복해졌는가? 삼계의 큰 스승, 자비스러운 어버이, 사랑의 큰 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 물건이요, 이놈이네. 대웅전 대적광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불하고 찬탄하고 경배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곳이 어디인가? 모양 앞이요, 느낌 앞이요, 생각 앞이다. 목탁소리에 분별이 다 지워졌네. 도도히 흐르는 웅장한 이 고요, 드러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응관이든, 반야든, 관세음보살이든 한 덩어리 이뭘까? 이~뭘까?

대지의 복덩어리, 잘 익은 가을 호박 덩실덩실 보시보다 더 큰 소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시는 월등한 내 큰 품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알게 해줍니다. 보시는 중병을 낫게 합니다. 아래턱이 돌아가는 이 소식이여, 후끈해지네. 주어라! 놓아지는 소식, 돌아가는 소식이다. 주면 열린다. 툭 터져 활발발 해진다. 고요가 드러난다. 무진고요 세상을 안고 있네. 소통에는 중병이 없다. 가까워 가까워져 엄청난 생명자리가 돌아간다. 아닌 것이 붙을 수가 없다. 인색해서 자기 성질에 지면 숨길이 막혀 못난이가 된다. 임명 종시 납월 팔일, 눈 깜짝 사이 마칠 때가 임박한다. 이 한 물건 공들여 공들여라. 항상 한 것이 어디 있나?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 천만번 변하고 변해도 바다는 역시 물 제자리 그리워서 천만번 뒤집어, 엎어, 잦혀, 변하고 변하는 바다여, 파도여. 무너지고 변하는데 어디다 마음 붙일까? 아, 파도가 물이네.

펄펄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기둥, 생각 전의 이 기둥 반야에 실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에 태워, 이뭘까에 태워 걸리는 것이 녹아져 견줄 데가 없어 서서 웃는다. 하늘 땅 한복판에 서서 웃는다. 만경창파 배 한 척이다. 한 점의 응이다. 응하는 이 놈이다. 만경창파가 조견이다. 돌이키는 빛이다. 조견 오온 개공이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이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랑이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다. 모두가 절절한 생명의 양식이다.

"국화는 아침이슬에 젖고, 낙엽은 가을밤에 떨어진다. 부처님을 묻는다면 바위 아래 젖지 않는 물소리."

납자의 오도송이다. 생기덩어리 빈 바다, 바다가 세상에 생기를 쏟아 붓듯이 이뭘까? 화두 몰두가 법계의 콧구멍을 열어 숨통이 터지게 해주네.

"한 사람의 정진대중이 세상을 산 기운으로 꽉 차게 해준다."
춘성스님 법문입니다.

가지가지 세상만사는 반야(般若)의 반(般) 누가 보고 누가 듣나? 아, 둘일 수가 없다. 이놈이다. 바로 반야(般若)의 야(若). 반야는 불가사의 한 덩어리 이뭘까? 화두 억 천만년 이 고요, 한 덩어리 이~뭘까? 이탈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애써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애쓰다 보면 아, 세상은 용맹정진이다. 세상만사 용맹정진이다. 돌이켜지는 힘이 확실해질수록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이글이글 돌아가는 원동력 한 덩어리, 생각 전, 일색의 한가한 공부길 얼마나 통쾌한가?

상주일체가 달마다. 저절로 자연스러워 달마야중이다. 법이요, 순리다. 반야가 이뭘까?다. 끝없이 돌아가니 그때그때 '맞게' 가 중도다. 일체가 달마야중이다. 가슴이 시원해지네. 억지와 무리는 쭈그러진다. 헛힘이다. 즉하에 돌아와라. 제자리, 지심(至心), 이뭘까?로 돌아와라. 벙실벙실 웃게, 세상이 박수치게, 백억 달마가 조도의 벗이다. '맞게' 가 중도다. 달마야중 맞는 법 호법선신이다.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있겠나? 무슨 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반야심경을 만났네. 그 시절 부처님을 지금 만났네.

'이 문제' 해결 법문 중에 부처님의 반야심경 법문보다 더 절절한 법문이 어디 있나? 아, 반야! 반야는 용맹정진이다. 하늘땅이 몰아주니 용맹정진이다. 목탁소리 파도소리 대종소리 천둥소리 가지가지 각양각색 다양한 소리 반(般) 소리 자체는 야(若) 여기에 이르러 버릴 자식이 어디 있나. 오온이 조견이다. 일체가 이놈이다. 물결은 반(般), 바다는 야(若), 반야는 용맹정진 이뭘까, 이~뭘까?

애쓰다 보면 자가옹 이 늙은이 여기 있었네. 나갈 때 들어올 때 지나가고 돌아올 때 대웅전을 향해 이뭘까로 경배합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 화두 놓칠 틈이 없네. 하늘이 와 있고 소리가 와 있고 땅이 받치고 있으니 화두 벗어날 틈이 없네. '이~' 하는 이 자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놈' 얼마나 쉬운가! 놓치지 마라, 잊지 마라, 순간순간이 용맹정진이다. 십년 후 백년 후 제자리에 와 있다면 성공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주는 반조, 이~뭘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졸고 있어도 그대는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이다.

같이 가고 같이 걷고, 서고 앉고 서로 함께 세월이 깊었네. 물마시고 옷 입고 언제나 대면이라. 머리 돌려 다시 생각할 일이 없네. 이~뭘까?

11월 27일 계묘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11월 23일 기준으로 결제 당일에 하신 방장스님 법어는 싣지 못했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미루는 마음에 공부 늦는다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함을 여의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신심명은 삼조 승찬 스님이 지은 글입니다.

승찬 대사는 수나라 양제 대업2년에 입적했습니다.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날의 문둥병입니다. 스님은 문둥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조혜가대사(二祖慧可大師)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해 주십시오."

"그대는 죄를 가져 오너라.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 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지금 화상(和尙)을 뵈옵고 승보(僧寶)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佛寶). 법보(法寶)라 합니까?"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에 혜가대사께서 그가 법기(法器)인줄 아시고 매우 기특하게 여겨 승찬 이라고 법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해 3월 18일 복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그로부터 병이 차츰 나아져서 2년 동안 혜가스님을 시봉 하였습니다. 입적 하실 적에는 법회 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 서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신심명은 격외도리와 교리의 현묘한 이치를 다 갖추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순상쟁(違順相爭)이
시위심병(是爲心病)이니.
불식현지(不識玄旨)하고
도로염정(徒勞念靜)이로다.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마음의 병이 되나니.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하도다. 〈중략〉

부사의해탈력(不思議解脫力)이여.
묘용항사야무극(妙用恒沙也無極)이로다.

부사의 한 해탈의 힘이여.
묘한 작용 항하 모래와 같아 다함이 없도다.

하안거 해제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늦어지는 것은 시간 여유가 있거니 하고 항상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모든 조사스님들도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 이 좋은 도량에서 이번 동안거 기간 애써 정진해서 공부를 성취하도록 합시다.

주인공의 삶을 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추행만국추무적(秋行萬國秋無跡)하고.
월만천강월불분(月滿千江月不分)이라.

가을 기운이 만방에 퍼져도 가을은 자취가 남아 있지 않으며. 달이 천개의 강에 잠겼는데도 하늘의 달은 나누어지지 않는구나.

일념 정진으로 깨달음 성취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동안거 결제 3개월 동안 대중스님들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각자 본성을 깨닫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一心淸淨境界淸淨(일심청정경계청정)
一心混濁境界混濁(일심혼탁경계혼탁)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바라보이는 세계도 맑고 청정하고 한 마음이 혼탁하면 바라보이는 세계도 혼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원시부족의 깨달음

원시부족은 생각했다. 깜깜한 밤에 마을을 환하게 밝혀주는 밝은 달을 따다가 마을에 나무 위에 걸어두면 마을을 항상 환하게 비춰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밝은 달을 따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을 향해서 달렸다. 곧 딸 것 같은 달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들판을 달려도 달을 딸 수가 없었다. 새벽이 오면 달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몇 날 며칠을 달리고 달리던 부족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달은 딸 수가 없다는 것을.

원시부족은 생각을 했다. 달은 마냥 머물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시부족은 더 이상 달을 좇아가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달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구나 찾고 있는 이 마음
누구나 간직한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걸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걸까!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걸까!
바보처럼…찾지 마라.

내 마음 늘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길을 걸을 때도 같이 길을 가는 것이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잠을 자고 노래를 부를 때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은 잠시도 나와 떨어진 적이 없는 것.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마라. 따로 깨닫게 한다고 깨달음을 좇아가지 마라. 깨달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머물고 행하는 이대로 일 뿐이다. 일상생활 어느 하나도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아는 이대로 이 자체가 나의 참다운 마음인 것이다.

항상 함께하는 이 마음 늘 여기에… 연꽃처럼 때 묻지 않고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는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이 마음.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고 영원한 이 마음. 본래 마음은 태어남도 죽는 것도 없다. 다만 물들거나 때묻지 않는 如如(여여)한 마음인 것을.

오늘 밤에도 달빛이 금정산 범어사를 비치고 있고 불어오는 바람에 대나무들이 몸을 맞대고 춤을 춘다.